

담양군, 청년·첨단농업 활용 '부자 농촌' 실현 박차

가능성 토마토 '토담토담' 육성 등 설포라판 추출 기술 미래 먹거리 육성 농업 예산 22억원 증액 1095억원 편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첨단농업 구축

담양군이 첨단농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으로 내건 '잘사는 부자농촌'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2년 연속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70억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9억원, 가족분노 공동자원화 사업 57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3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5억원 등 지난해 대비 22억원 증가한 1095억원을 농업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담양군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첨단 농업 기반 조성에 발판을 마련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전남도와 철저한 사전 준비, 집단 민원 적극 대응 등 유기적인 협업을 지속해 온 노력 끝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축산시설 기반 조성 및 교육, 관제센터 조성에 48억원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및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등에 97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축사에도 ICT 융복합 시설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과 더불어 악취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친화적인 축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담양군 농업사관학교는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죽향, 메리퀸으로 대표되는 담양 딸기와 대숲맑은쌀 등 명품 농산물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담양 딸기는 현재 미국, 몽골, 베트남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TSE그룹과 최초로 해외 로열티 1억원의 협약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블랙트리프그룹과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협약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가능성 토마토 브랜드인 '토담토담'의 세계화를 위해 일본 히마와리, 가나종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첫 주춧돌을 마련하기도 했다.

토담토담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가능성 토마토인 '루비벨'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50ha까지 확대하고 항암·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브로콜리 새싹의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담양쌀은 유럽과 미주 등 세계시장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 300톤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군은 대숲맑은쌀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다지고 수출, 공공급식 납품 확대와 벼 대체작목 재배면적 확대 등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북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새로 지어 대전면, 봉산면, 수북면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근로자 기술사를 건립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잘사는 부자농촌"이라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농·축산업의 첨단산업화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비용 지원 함평군, 최대 90%까지

함평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억5549만원의 지원한다.

함평군은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연료전환(저녹스버너 부착) 노후 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함에 따라 해당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기한은 내달 7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며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촌이웃발 참여자 모집 화순군, 50구획 분양·27일까지

화순군은 도시민의 농촌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비농업인 군민을 대상으로 농촌이웃발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이웃발(화순읍 서태리 241-2번지)은 1구획당 16.5㎡로, 총 50구획의 텃밭으로 조성됐다. 1구획당 사용료는 2만원이다.

텃밭 신청은 화순군 거주 비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만 70세 이상)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된다.

부지 토양 개량 및 정리가 완료되는 오는 3월 상순부터 11월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촌이웃발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촌이웃발 운영을 통해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유롭게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따뜻한 도심 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화순군은 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시농부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내실 있는 도심 속 텃밭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영농 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웃발이 이웃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함평군, 2월 7일까지 접수

함평군이 농촌 경관 및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함평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와 '농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함평군민은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빈집) 50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250만원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도심지 및 가로변 등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붕괴 또는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우선순위로 한다.

또 '농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50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거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거주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2억5000만원, 증축 또는 대수선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연 2%)의 융자를 지원한다.

농촌지역 이주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해당 금융기관(농협)에서 융자 대출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함평이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 16일 영광군 의료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

영광군이 지난 16일 보건소 외 의료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장례식장,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집소에서 지역주민,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KF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예방수칙 리플릿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등이 동시

발적으로 발생하는 '쿼드데믹'이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와 모임 등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1일에 캠페인을 추가 실시하고 관내 고위험군 경로당 400여개소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정비

덩굴류 제거 등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일원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백수해안도로 일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백수해안도로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36ha, 16.8km로 지난달 20일 착수해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



백수해안도로 주변 산림에 대한 슈아베기, 덩굴류제거, 고사목 및 잡관목 제거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수해안도로 방문객들이 조망하는 해안 산림경관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자연미를 함양하고 자생수종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백수해안도로에 숲가꾸기를 포함 연중 풀베기 작업을 통해 산림경관을 깨끗이 정비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